

주임신부: 김대하 (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 (사도 요한)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대림 시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마태오 1, 20)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12/21(일) 대림 제 4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 ▶ 12/23(화) 12 월 23 일 (본당 20:00)
- ▶ 12/24(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본당 20:00)
- ▶ 12/25(목) 성탄 대축일 낮 미사 (본당 16:00, 공소 미사 없음)
- ▶ 12/28(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본당 11:00, 공소 17:30)

◎2026 현금 봉투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영문 이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투 번호는 재정부 관리용입니다. 작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하태성 베드로

◎성탄 미사 전례단, 해설단 전례 회의

오늘 친교식사 후 성전

◎성탄 미사 시간 안내

성탄 밤 미사 (24일 밤 8시), 성탄 낮 미사 (15일 낮 4시)

◎성탄 구유 예물 경배 봉헌

12/24 성탄 밤 미사(20:00), 12/25 성탄 낮 미사(16:00)
봉헌처: 예수의 까리따쓰 수녀회 남수단 선교지에 봉헌됩니다.

◎성탄 공연

- 장르: 신나고 귀여운 크리스마스 캐롤
 - 대상: 각 구역 및 본당 제 단체
- 각 구역장들은 공연 진행을 위해서 콘티와 필요한 요구사항을 총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성모 신심, 십자가의 길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훈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3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3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이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판공성사표

판공성사를 하신 신자분들은 반드시 판공성사표를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소식

◎2026년 캐나다 한인 꾸르실리스따 쇄신 피정

- 일시: 2026년 2/6(금) 오후 5시 – 2/8(일) 오후 3시
- 장소: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 주제: 만남
- 참가비: \$320
- 신청 마감: 2026년 1월 25일. 신청서는 복도 테이블 문의 및 접수: 간사 박혜영 수산나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파티 12/21(일)

구역 소식

◎12 월 구역 나눔 말씀 주제: "순수", 마태오(1,18 ~ 24)

공소 소식

◎12/25(목) 성탄절 미사 (본당 참여)

◎12/31(수) 오후 7 시 송년미사 (신부님 – 사제 서품 기념/영명축일)

◎12 월 세례 축일자 12/13 루시아 (최로아)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7 명)			
주일헌금	\$1625	교무금	\$24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80

감사합니다.

- 성가대 도네이션: 주수원 수산나, 이인선 젬마,
우경숙 윤리아

◎12 월 축일자 (21 명)

- 12/3 루치오(김태훈), 스텔파노(최우중)
- 12/9 발레리아(김나경) 12/10 윤리아(우경숙, 김새롬)
- 12/13 루시아(이혜영, 조혜자, 이민아, 조인순)
- 12/24 일미나(김진희)
- 12/26 스텔파노(양진훈, 민종환, 최두원)
- 12/26 스텔파니(정혜자), 크리스티나(이순옥)
- 12/27 사도요한(하재석, 권병학, 이용원, 이준서, 김대하)
- 12/31 바울리나(민옥희)

친교식사 ※ 테이크 아웃용 종이백/ 비닐은 각자 준비

12/21: 1 구역(황태 콩나물국 \$5/\$3)

12/28: - 1/4: 3 구역 1/11: 2 구역

2025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삼종 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21	이은영 힐데가르트	이준환 파비아노,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이지훈 다니엘 임연신 바야
12/24	박혜영 수산나	최다혜 플로라, 이준환 파비아노 최다인 안나, 최다희 보나 이준규 안드레아, 김규리 라파엘라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12/25	김의수 안드레아	최다혜 플로라, 최아현 배로니카 최다희 보나, 이준규 안드레아 이지민 이사벨라,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인선 젬마 박규혜 카타리나
12/28	박규혜 카타리나	이지민 이사벨라 최아현 배로니카	1 독서: 이준환 파비아노 2 독서: 김규리 라파엘라	유세진 라파엘 이준규 안드레아

믿고 순종하는 이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한인규 세례자 요한 신부
월평성당 주임

이번 주는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 제4주일은 다윗 가문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가 누구이시지를 알려 주며 또한 구세주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아하즈왕과 요셉에 관한 사건들을 들려주면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시기에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하고, 오로지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남 유다의 아하즈왕의 경우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이사 7,9)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순수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표징까지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던 아하즈는 오늘 독서에서처럼 하느님의 표징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아하즈는 도무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존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다윗 가문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운하기로 생각을 굳혔지만, 꿈에서 주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신명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율법 자체에 얹매이지 않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에게도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마태 1,19) 그리고 결국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것에만 매달리던 아하즈는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나라를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지만,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고 순종했던 요셉은 영원한 해방과 생명 자체이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우리도 곧 다가올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느님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계산만을 믿고 있는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보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희망을 걸고 성모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참된 그리스도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합시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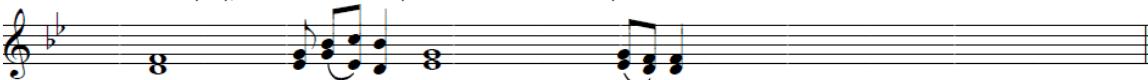


대림 제 4 주일

(2025. 12. 21.)

제 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7,10-14

화답송 시편 24(23), 1-2.3-4 그 5-6(◎ 7 그 10 그 참조)



후렴.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살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시작입니다. 1,1-7

복음 환호송 마태 1,23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24

배움과 체험의 해

2025 사목지침